

단원명: 미주 이민사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단원명: 미주 이민사

단원 설정의 취지

1903년 한인들을 태운 첫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인 이민 역사를 통하여 미주 한인의 뿌리를 찾아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단원의 목표

1. 한국인들의 초기 미주 이민 경로를 알아본다.
2. 미주 이민 초기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재미 한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3.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보고 미국 지도에 표시해 본다.
4. 학생들의 가족은 어떻게 이민하였는지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 본다.
5. '미주 한인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알아본다.
6. 샌프란시스코의 '이종문 아시아 예술문화센터'에 대해 알아 보고 기부的重要性을 이해하며 견학 기록문을 작성해 본다.
7. 자랑스러운 재미한인을 찾아보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차 례

단원명: 미주 이민사	2
단원 설정의 취지	2
단원의 목표	2
교사 및 학생을 위한 활동 안내	4
교사를 위한 자료	8
학생 활동 및 평가지	12
활동 1: 미주 이민 경로	13
활동 2: 가족 이민사	14
활동 3: 선진국 시민	15
활동 4: 한인 다수 거주지	16
활동 5: 견학기록문	17
활동 6: 내가 아는 훌륭한 재미 한국인	18
활동 7: 자랑스러운 재미 한국인,	19
활동 8: 단어 공부	20
활동 9: 주요 단어 카드	22

교사 및 학생을 위한 활동 안내

1. Power Point 자료 활용 안내

Page	학습 제목	학습 내용
1	집조 (여권)	- 학생들에게 한국 최초의 여권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여권과 무엇이 다른지 물어본다. - 광무 8년(1902년) 하와이 이민 때 사용한 대한제국의 집조 (여권)
1	갤릭호	- 학생들에게 무엇을 타고 미국으로 왔는지 물어본다.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 부모님들이 어떻게 미국에 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00년 전에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어떻게 왔을까 상상해 보게하고 발표하게 한다. -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선 갤릭호: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일본 상선 겐카이호를 타고 인천을 떠나 일본의 고베 항에서 다시 이민선 갤릭호로 갈아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노룰루 항에 도착하였음
2	미주 이민 경로	-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의 인천을 떠나 미국의 하와이에 도착한 경로를 직접 보여준다. 1903년 1월 13일에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갤릭호를 타고 만 리 길을 떠났던 102명은 하와이 호노룰루 항에 도착한다. 한국 역사상 첫 공식 이민이다. - 하와이에서 다시 오게 된 곳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다. 1905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정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이다. 바로 이곳에 흥사단과 비행 학교가 생겼고,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장인 환, 전명운 두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다. 학생 활동 1: 미주 이민 경로, 한인들의 최초 이민 경로에 대하여 지도에 그려보게 한다.
3	캘리포니아 초기 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들이 한 일들을 설명

	민 정착 지역	한다. ○ 하와이나 본국에서 미주 본토로 온 초기 이민자들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일터를 찾아 주로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 북가주에서는 벼농사와 무 농사 등을 지었고 중가주, 남가주에서는 주로 과일 농사를 지었다. 학생 활동 2: 가족 이민사, 학생들의 가족이 어떻게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본다.
4	안창호 선생님과 홍사단	● 초기 미국 이민자들의 활약상을 설명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안창호 선생임을 알려준다. ○ 안창호 선생님 가족은 미국에 처음으로 가족 단위로 이주하였고 자녀들도 미국에서 출생한 첫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 홍사단은 1913년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물양성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가 창립한 단체이다. ○ 일본 제국시대에는 국권회복에 기여할 인물 양성에 주력하였고, 상해임시정부의 운영 자금 조달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민 계몽단체로 자유와 민주사상을 고취하여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또한 1963년부터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청년 학생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 일제 식민지 초기에서 오늘날까지 백여 년 간 이념과 조직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홍사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되어 초기 이민의 정신과 힘을 집결하게 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 활동 3: 선진국 시민, 안창호 선생님의 초기 동포 계몽 운동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정해 본다.
4	홍사단	2004년 홍사단 창단 기념 모임

5	한인 다수 거주지	오늘날 미국내 한인 다수 거주지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찾아보고 도시 이름을 알아본다. →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San Francisco, Chicago, Seattle, Philadelphia, Atlanta 학생 활동 4: 미국내 한인 다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고 알아본다.
6	미주 한인의 날 제정	2003년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이 통과됨 - 미국에 첫 한국인 이민선이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함.
6	미주 한인의 날	2008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그림그리기에 출품하여 입상한 한인 어린이들
7	‘종문 리 아시아 예술 문화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세워진 ‘종문 리 아시아 예술문화센터’는 천육백만 달러의 기부로 만들어졌는데, 대도시 박물관에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자랑스러운 징표이다. 학생 활동 5: 견학 기록문 작성
8	자랑스러운 재미한인들	- 자랑스러운 한인 롤모델을 알려준다. - 안창호: 교육가, 독립운동가, 흥사단 설립, 교육과 실력을 키우는 것을 중요시함 - 서재필: 미국 최초의 한인 의사, 독립신문 발간 - 새미리: 1948년, 1952년 미국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이면서 의사 - Herbert Choy: 아시안인으로 최초의 미국 연방 법원 판사 - 해리김: 넥타린 과일을 발명함
9	자랑스러운 재미한인들	- 반기문: UN Secretary General - 박찬호: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 세라장: Violinist - 고홍주: Legal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 미셀리: Chancell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System - 이창래: Writer

		o 미셀위: golfer 학생 활동 6: 내가 아는 훌륭한 재미 한국인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취를 한 대표적인 재미한국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주도록 한다. 학생활동 7: 자랑스런 재미 한국인, 30년 후의 내 모습 표현하기 한국학교의 대다수 아이들에게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아이들의 전 인생에 걸쳐서 큰 잇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한국계임을 이용하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의 하나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N/A	어휘 및 주요 단어	학생 활동 8: 단어 뜻 고르기와 배운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학생 활동 9: 주요 단어 카드

교사를 위한 자료

1. 참고 사항

1) 미주 이민 경로

1902년 12월 22일 일본 상선 겐카이호를 타고 인천을 떠나 일본 고베 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그곳에서 이민선 겐릭호로 갈아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만 리 길을 떠났던 102명으로 시작된 한국 역사상 첫 공식 이민이었다.

1900년에 미국에서는 “Organic Act”라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하와이에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와이에 사는 노동 이민이 미주 본토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05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정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이다.

2) 한인 다수 거주 지역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San Francisco, Chicago, Seattle, Philadelphia, Atlanta 등의 도시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3)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홍사단

1896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경영하는 구세 학당에서 공부하며 서구 문물과 접하게 된 안창호는 근대 학교인 점진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1902년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당시 미주 한인들이 구심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안타깝게 여긴 그는 한인사회 계몽운동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1905년 본국의 을사조약 체결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귀국하여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민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다시 평양에 일장기 게양 거부로 폐교된 대성 학교를 세운다.

1912년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 대한인국민회와 홍사단을 조직한다. 홍사단은 일본 제국시대에는 국권 회복에 기여할 인물 양성에 주력하였고, 상해임시정부의 운영자금조달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민 계몽 단체로 자유와 민주 사상을 고취하여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또한 1963년부터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청년 학생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일제 식민지 초기에서 오늘날까지 백여 년 간 이념과 조직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홍사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되어 초기 이민의 정신과 힘을 집결하게 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 정부에서 활동했으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의거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가 가출옥하여 숨어 살았으나,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홍사단 동지들과 함께 다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병 보석으로 치료 중에 세상을 떠났다. 안창호는 미국에 있을 때 리버사이드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오렌지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인들에게 지도하셨다.

안창호 선생님 가족은 미국에 처음으로 가족 단위로 이주하였고 자녀들도 미국에서 출생한 첫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안창호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 “Do your best to be good American citizens but never forget your Korean heritage.”

4) 미주 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

미국은 첫 한국인 이민선이 미국에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로 정했다. 1903년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겔릭호가 하와이 호노룰루 항에 도착한 날이다. 미국에서 특정 소수계 이민을 위한 기념일이 지정되는 첫 사례였다.

미국의 한 신문은 “미주 한인들은 그 이전 미국에 온 다른 이민 그룹과 마찬가지로 강한 가족 유대와 공동체 지원, 근면을 통해 미국에 뿌리 내리고 번성하고 있다”며 경제, 사회, 종교, 학술 등 많은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기여를 열거했다.

5) 이종문 아시아 예술문화센터

지난 1992년에 일어난 미국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은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 동포들은 애초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야기된 이 사건의 불똥이 한인들에게 튀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란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회사인 “암백스 벤처그룹” 이종문 회장은 이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동포이다. 그는 미국에서 이뤄낸 거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예술 문화센터”의 보수 공사에 천육백만 달러(약 208억원)를 내놓아 미국 공공기관에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종문 센터”라는 이름을 올렸다.

6) 자랑스러운 재미 한인들

- 서재필(1864-1951): First Korean to become an American citizen, First Korean American medical doctor, 1885년 망명하고 1890년 한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고, 1892년 최초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음. 1896년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운동의 주역이었음. 필라델피아 근교에는 그를 기념해 만든 Philip Jaisohn Memorial 기념비가 있음.
- **안창호(1878-1938): 교육가**, 독립투사로서 흥사단을 설립함.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인재육성과 실력양성을 강조하였다.
- Harry Kim: Created the "Fuzzless Peach" Known as the Sun Grand Nectarine
- Michelle Wie: 미국 여자 프로 골퍼,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들어감.
- 김창준: 미 연방 의회 3선 하원의원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California, Diamond Bar시 시장을 역임하였음.
- Herbert Choy (1916-2004): Appointed to the U.S. Court of Appeals, First Asian American to serve as a US federal judge
- 박찬호(Chan Ho Park): First Korean America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 반기문(Ban Ki-moon): 1944년 출생, UN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United Nations)
- **고홍주(Herald Koh): 1954년 출생,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법률 고문(Legal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 **고경주(Howard Koh): 1952년 출생,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 대학원 부학장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부 보건담당 차관보 (United States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 데이빗 현(David Hyun): 건축가로서 LA 관광명소인 Little Tokyo를 디자인하고 관리함.
- **세미 리 (Sammy Lee): 1948년과 1952년 미국 올림픽 다이빙 부문 대표로 나가 금메달을 두 번씩 획득한 한인 2세 올림픽 챔피언이자 의사. (First Asian American to win an Olympic gold medal for the United States)**
- 세라 장(Sarah Chang):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세계 유명 교향악단과 협연함.
- 이창래(Chang Rae Lee): 1965년 한국 출생, 한국계 소설가, PEN/헤밍웨이 상,

아메리칸북 상 등 미국 문단의 6개 주요상 수상함.

- 미셸 리(Michelle Rhee): 1970년 출생, 한국명 이양희, 워싱턴 D.C. 교육감(Chancell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system)

2. 참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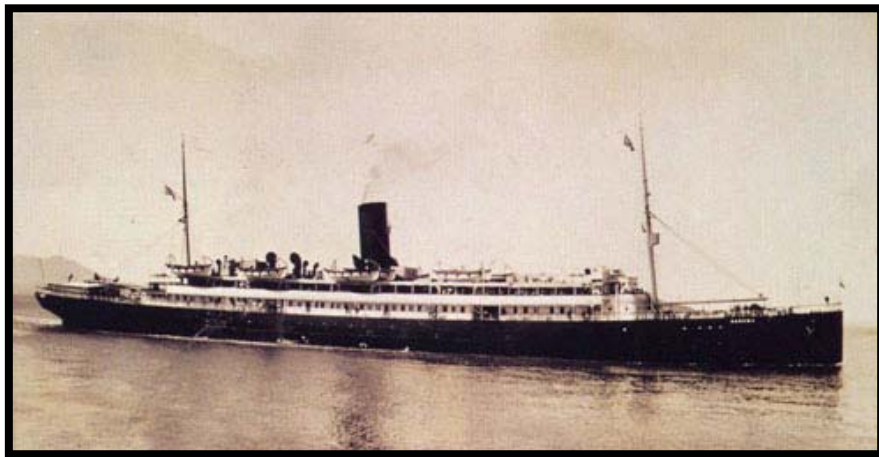
- 1) ‘하룻 밤에 읽는 미국 첫 이민 이야기’ [‘The Enduring Journeys of America’s First Korean Immigrants’] 김영란 지음, 북산책
- 2) ‘무형의 정부’ : 국민회 100년 [10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 ‘Invisible Government’] 국가보훈처

3. 관련 웹사이트

- 1) <http://koamhistory.com>
- 2) <http://www.mpva.go.kr>

단원명: 미주 이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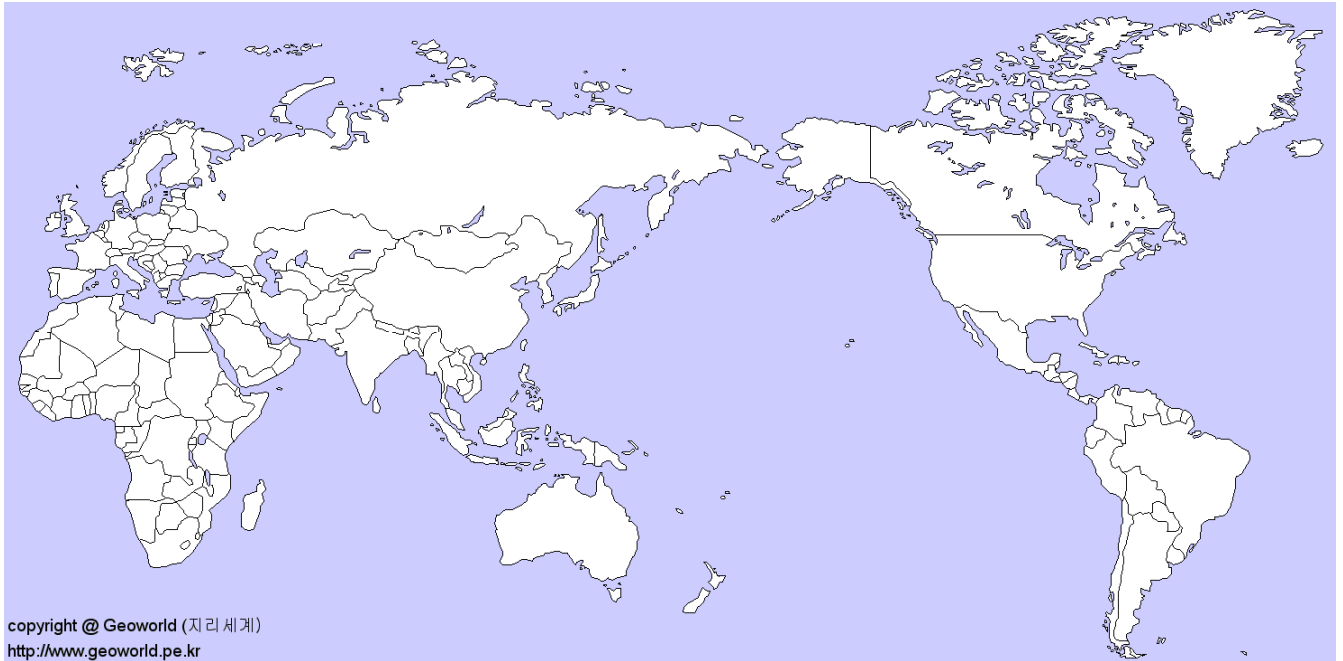
학생 활동 및 평가지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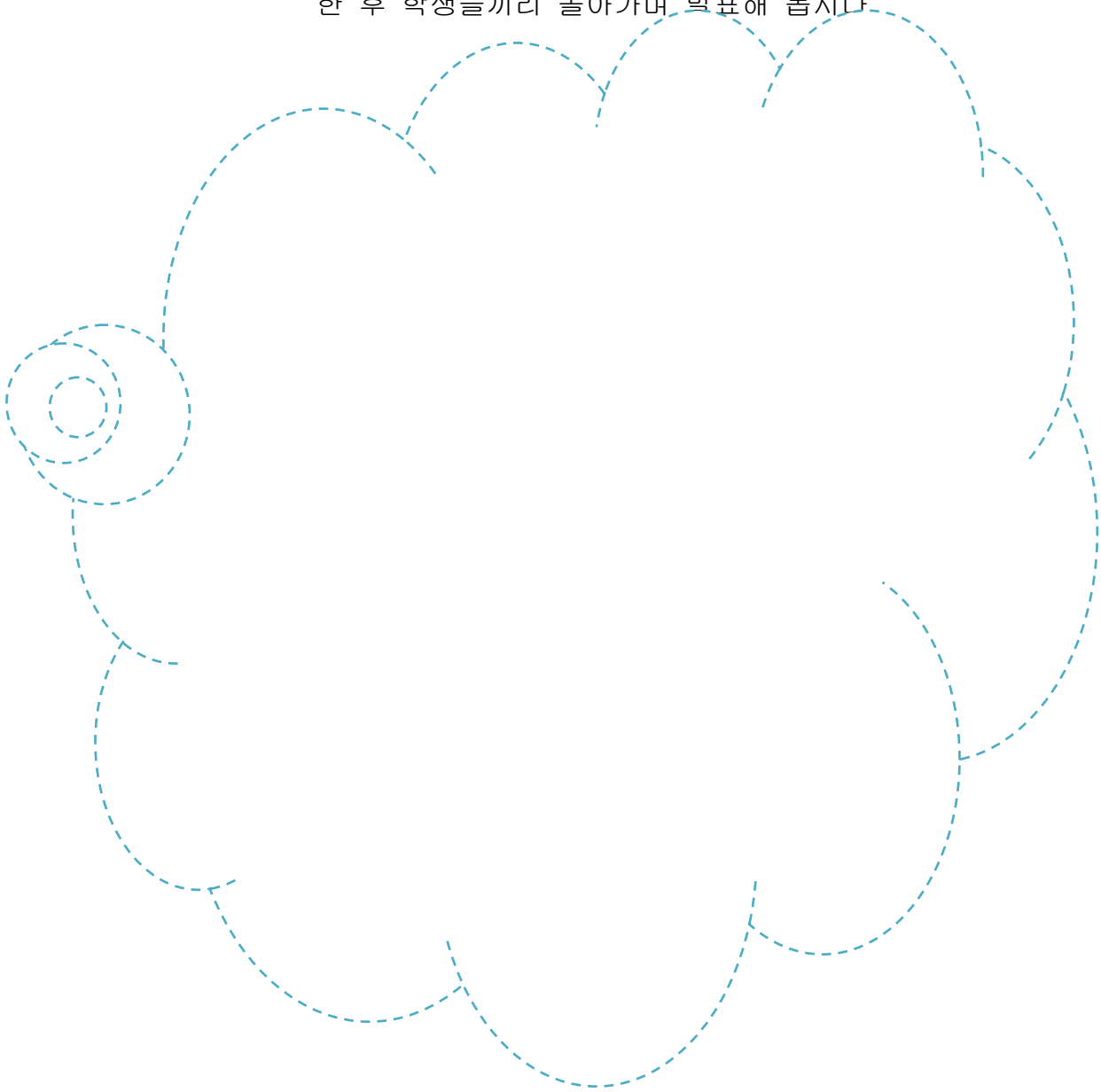
활동 1: 미주 이민 경로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무엇을 타고 어디를 거쳐 미국 본토에 도착했는지 아래의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활동 2: 가족 이민사

부모님께 우리 가족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여쭙 보고 아래에 내용을 기록한 후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발표해 봅시다



활동 3: 선진국 시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재미 한인공동체 발전과 결속이 곧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이라고 믿으면서 미주 이민 초기 동포들의 계몽이 시급하다고 하여 청소 운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동포의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창을 닦고 커튼을 치고 문 앞에 화분을 놓거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민 100년이 지난 지금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내가 만든 규칙

1. 집안 청소 + 집 주변 청소
- 2.
- 3.
- 4.

활동 4: 한인 다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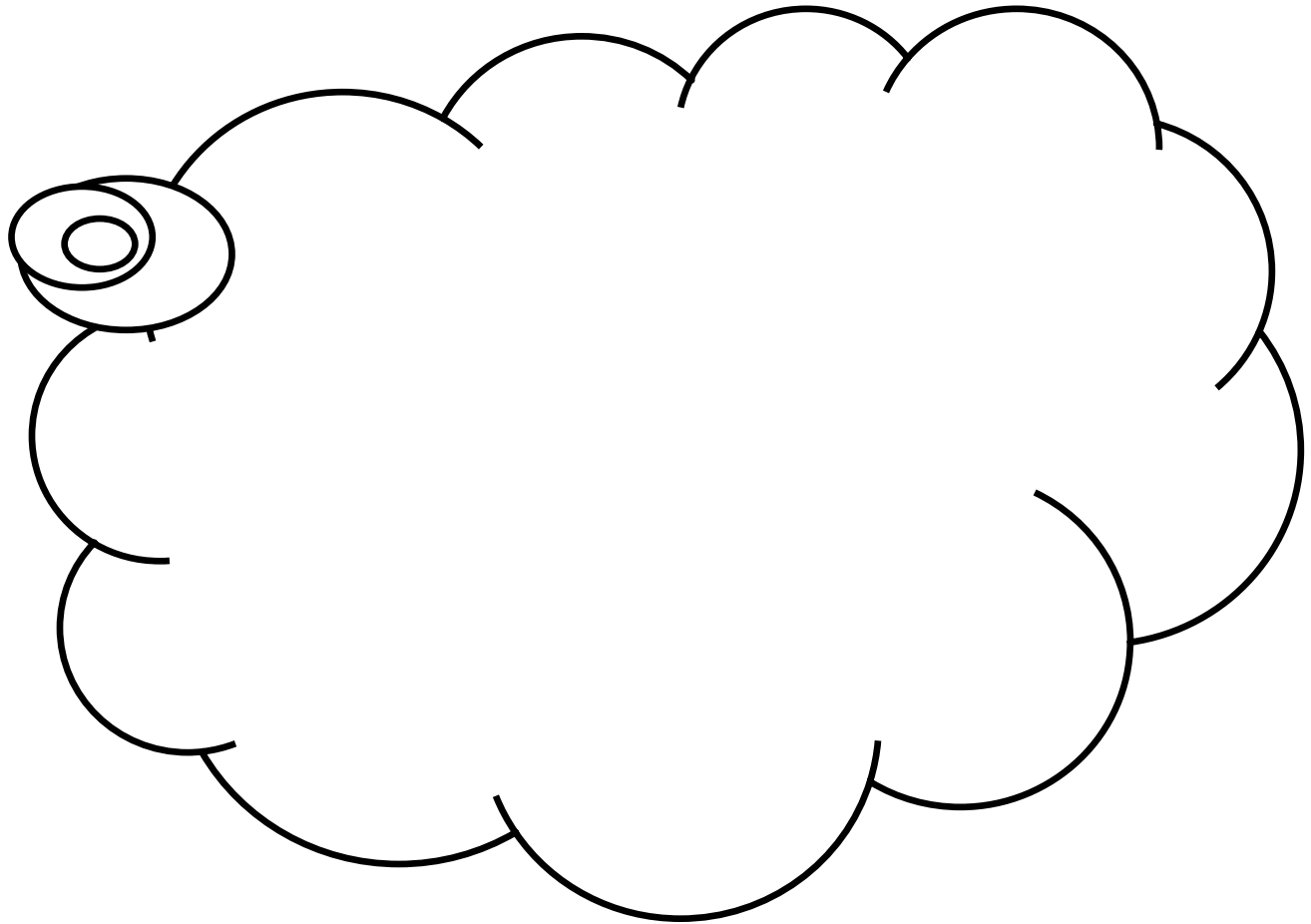
미국 내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찾아서 표시해 봅시다.



활동 5: 견학기록문

“이종문 아시아 예술문화센터”를 방문한 뒤 감상 기록문을 써보세요.

1. 기부 문화란 무엇인가요?
2. 이종문 선생님은 왜 ‘아시아 예술문화센터’에 큰 돈을 기부하셨나요?



활동 6: 내가 아는 훌륭한 재미 한국인

가장 훌륭한 재미한국인을 한 분 정해서 그 분의 삶에 대해 알아보시다. 그 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아래에 적고 친구들과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가 존경하는 재미한국인

이름:

사진:

활동 내역:

그 분의 삶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점:

활동 7: 자랑스러운 재미 한국인, 30년 후의 내 모습 표현하기

3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고,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아래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인지 써보세요.

3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활동 8: 단어 공부

아래 보기에서 맞는 단어 (영어, 한국어)를 찾아 영어 설명과 서로 맞는 곳에 써보세요.

1. Someone, usually more distant than a grandparent, from whom a person is directly descended
2. 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the government, giving proof of the holder's identity and nationality, and permission to travel abroad with its protection
3. The act of setting or the state of being settled
4. To come to a foreign country with the intention of settling in it
5. The state, condition, quality or process of being independent

<보기>

이민	정착	ancestor	settlement
여권	선조	immigration	independence
독립		passport	

- 다음 단어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이 민	
정 착	
선 조	
여 권	
독 립	

활동 9: 주요 단어 카드

이민	immigration
독립	independence
정착	settlement

선조

ancestor

여권

passport

활동지 답안

활동 1: 파워포인트 참조

활동 4: 파워포인트 참조

활동 8:

- 선조: ancestor
- 여권: passport
- 정착: settlement
- 이민: immigration
- 독립: independence